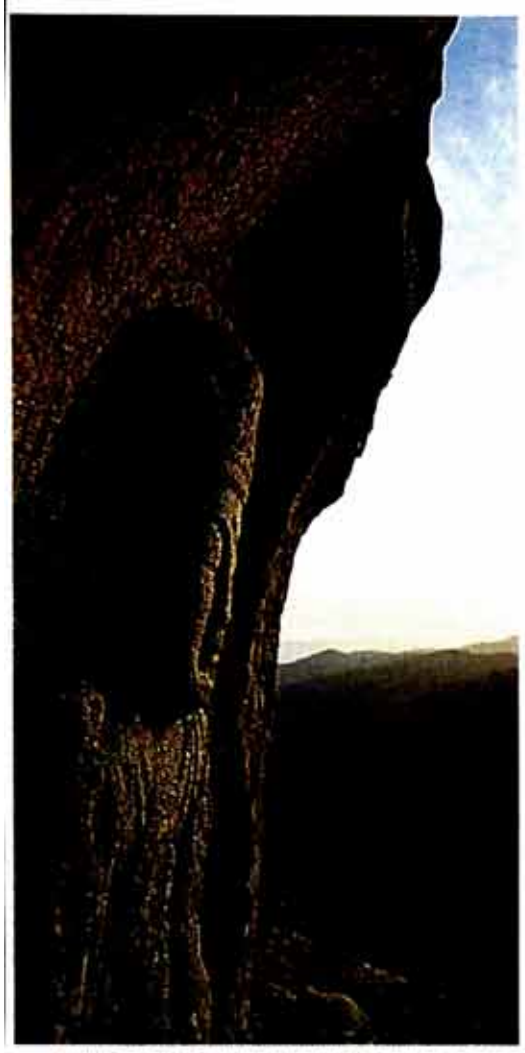
시방세계

장업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철 이정표
전철고등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철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회재안정 포맥스
사철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며 본사 작업 사철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cm×30cm)



◇남산 돌부처들은 빛과 시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현현한다. 사진은 일출 때의 신선암 마애보살 유희좌상.

◇남산 지킴이를 자부하는 남산연구소 사람들은 룸보살의 천당인 남산의 유적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틈만 나면 산을 오른다.

- 경주 남산
- 멀리서 바라볼땐
- 바위산이지만
- 안에 들어가면
- 석불·석탑·절터…
- 불국의 세계

경주 남산연구소 사람들
www.kjnamsan.com

"부처님 만나러 남산에 간다"

매월 보름전후 토요일

남산 달빛기행

달빛을 등불로 삼아 남산을 오르는 것도 남산 산행의 또 다른 묘미이다. 남산연구소 남산사랑 모임에서는 남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매월 보름을 맞는 토요일 저녁, 남산 달빛기행을 떠난다. 청명한 보름 달빛 아래서 남산의 부처님의 미소를 만끽하는 남산 달빛기행은 세간에 찌든 모든 번뇌를 놓아 버리고 누구나 선의 삼매경에 빠지게 한다. 또한 차(茶)와 구수한 우리가락으로 남산 속에서 걸쳐지는 회향 한마당은 달밤의 정취에 즉 젖어들게 한다.

남산 달빛기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준비물은 특별히 없다. 그 대신 남산사랑모임에서는 "노래나 시(詩)를 한 보따리씩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다. 회비는 1년에 1만원이다. 이는 매월 엽서로 남산 달빛기행 안내문을 보내는 발송비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산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경주남산(www.kjnamsan.com)'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0561-773-8079)

한편 경주의 신라사람들(0561-748-7707)과 정토법당(0561-772-1950)에서도 매월 음력 보름을 전후해 달빛기행을 하며, 신라문화원은 1년에 2번 마련한다.

◇용장골 삼층석탑

천년 전 불국토를 향한 석공들의 비원으로 바위 속에서 태어난 남산의 돌부처. 그 부처님들은 동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봄그스름한 미소를 지으며 깨어난다. 그리고 하루종일 빛과 시간에 따라 수만가지 모습으로 현현한다. 남산을 '부처의 땅'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남산의 신비를 모른다면 남산 산행은 조각품 감상이나 산길을 걷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남산 지킴이'를 자부하는 경주 남산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탑골 부처바위 마애조상군(보물 201호)을 찾았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무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협시불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깨어진 것 같습니다." 마애불 우측의 범상치 않은 부분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덧어놓는다.

10여분이 지났을까. "여기를 보십시오"하는 흥분된 목소리가 일행들의 발길을 잡아챈다. 비천상의 모습이다. "저렇게 확연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생동적입니다. 빛과 비천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수없이 찾아 뵌 부처님이건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남산은 언제나 새로운 산이다.

남산지킴이 10명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경주 남산연구소는 남산 안내, 불적 발굴 및 보호, 그리고 토론회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남산연구소 실장 김구석(48) 씨는 연구소 설립의 주역이다. 고등학교 시절인 69년 남산을 처음 찾은 그는 30여 년을 남산과 함께 하고 있다. 천년 전 석공이 바위 속 부처님을 찾아냈다면, 그는 이 부처님들을 세상 속으로 나투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남산 관련 책자에 실린 사진들이 대부분 그의 작품일 정도이다. 그는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산행안내 500여 회, 남산 슬라이드 강연 100여 회, 그리고 사진전도 열었다. 이밖에도 남산문화유산 강좌 등 남산을 위한 그의 활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가 남산을 향해 내뿜는 열정은 강수복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고도 대학원에서 남산연구를 하는 학생으로 되돌아갈 정도이다. 그는 남산을 '법열의 저장고'라고 말한다. "태양광선에 따라 불상전체를 감싸고 타오르는 법열은 금방이라도 세상의 모든 유정을 태워버릴듯 뜨겁습니다. 수많은 룸보살의 법열이 가득한 남산은 법열의 저장고이자, 부처님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지요."

◇칠불암 마애불상

남산연구회에는 지도위원 1명, 부실장 1명, 그리고 연구위원 6명이 있다. 그 가운데 연구위원을 맞고 있는 신라중학교 송재중(55) 교사는 80년대 초 대전에서 경주로 직장을 옮기면서 뒤늦게 남산과 인연을 맺었다. 남산과의 인연은 10여 년 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는 남산을 머리 속에 넣고 다닌다. 88년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 남산 유적의 모든 것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경주남산지도'와 10년간에 걸쳐 완성한 '경주문화유적전도'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지도를 손에 쥔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남산의 법향이 배어나고, 부처님이 살아 있는 듯하다'는 말을 내뱉곤 한다. 그는 요즘도 남산의 돌 하나, 기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연구위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사람이 바로 김덕수(48) 씨. 부처님마을 초대촌장, 남산사랑모임 초대회장, 현 농협불자회 회장이라는 하나같이 '돈 안되는(?)' 직함만으로도 그의 진면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인들이 남산의 바위와 숲을 부처님의 몸처럼 여기고 불보살상을 조각했듯이 그도 남산을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여기며 남산을 오른다. 그의 불심과 남산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남산이 경주시만의 것만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남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

남산연구소는 인터넷 사이트 '경주남산(www.kjnamsan.com)'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절터 130여곳, 석불과 마애불 100여기, 석탑 70여기, 석등 20여기 등 남산의 모든 유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남산 축소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사이트에 실린 사진들은 대부분 경주시 박물관 학예연구원이면서 문화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윤(37) 씨의 작품이다. 또 각종 문헌 기록 정리는 경주대 이근직(37) 교수가, 문화재적 접근은 계림고등학교교사 최민희(48) 씨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김성범(47) 씨, 그리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연구원 김호상(35) 씨가 맡고 있다. 이밖에도 남산 안내는 부실장 최광복(31) 씨의 몫이다.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남산 이야기만 나오면 신바람이 나는 남산연구소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남산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바위가 많은 광법한 산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불국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며 "남산 산행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여행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남산에 오를 때도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돌 조각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분신이자 깨침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주 남산은 지상에 펼쳐진 불국의 세계로 불린다. 하지만 그 불국의 세계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깨치려는 염원과 의지, 그리고 신심을 갖춘 사람에게는 성산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광법한 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남산은 천년을 이어왔고, 또 천년을 이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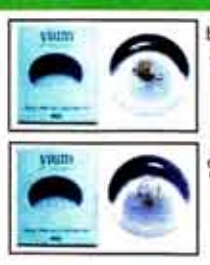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제품가격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선가격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금비누 (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제품가격
▶1 개 당 : 15,000원
▶100개 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